

국가형제회 총회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던 것 같다’



청년 재속프란치스코팀의 멋진 음악에 맞추어 노래하고 춤을 추는 모습

한 참석자는 총회를 마치고 떠나면서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던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실로 정말 많은 의제가 다루어졌다, 활기찬 만남을 통해 온갖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청년 프란치스코회원들의 멋진 음악 덕분에 즉흥적으로 신나는 Conga line 춤도 추었고, 깊은 영적인 순간들을 체험했으며, 형제회 실무에 관한 토론도 있었다. “사랑과

연민으로 함께 하는 여정”이란 2019-2020의 국가형제회 주제를 포함하여, 우리의 형제회가 지금까지 온 여정과 앞으로 가야 할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도 있었다. 심지어 전 세계의 모든 프란치스코 형제들에게 보여줄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영화 Star Trek에 등장하는 Vulcan의 인사법으로 인사를 하기도 했다. 전 지역에서 온 참석자들이

친교를 가지며 서로 알 기회가 많이 있었고, 매일 개인 기도와 공동기도를 봉헌했다. 소그룹 모임에서는 형제회 생활을 강화 할 수 있는 것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의견을 나누기도 했었고, 큰 그룹 모임에서는 긴 시간 동안 의견에 대한 평가와 결정하면서 형제회의 현재와 미래에 직면할 어려움과 기회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Spur 매일 전례과 영속적 양성으로 영적으로 고무되었다. 영육간 건강을 바라며 Star Trek Vulcan 식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

Large group marathon sessions



이번 총회는 세 지구 형제회 (Los Tres Compañeros, St. Joan of Arc, 와 Our Lady of Guadalupe Empress of the Americas)의 주최로 Pax Christi Liturgical 피정의 집에서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개최 되었다. 80여 명의 참석자는 닷새 동안 프란치스칸 영성과 장래의

양성 그리고 남부 국경선에 있는 1000여 명의 이민자를 위해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여 도왔던 봉사 사업 등등 전반에 걸쳐 되돌아보는 여정이었다. 또한 수도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우리의 진실한 형제인

수도자들, 프란치스칸 영성에 귀의하는 젊은이들, 사회 정의, 평화와 생태 보존 등등에 대해 더 알고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지역 주교님의 따뜻한 환대와 형제자매들과 기쁜 만남은 축복이었다.

- Mary Stronach, OFS

2019-2020 국가 형제회 주제: 사랑과 연민으로 함께 하는 여정



단체사진

Mulvey 주교께서 국가 형제회를 개최하셨습니다.



교회 쇠신을 위하여 재속 프란치스코회가 영적인 동력이 되기를 촉구

By MARY STRONACH, OFS

수천 명을 먹이시는 그리스도를 묘사한 CORPUS CHRISTI 성당 원형 천장 아래에서, Michael Mulvey 주교는 Pax Christi Liturgical 피정의 집에서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열린 국가 형제회 총회 개최를 도우셨고, 형제회원들과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 주셨다. 처음으로 이 성당에서 국가형제회모임을 가졌고, 미국 전 지역과 광에서 온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주교님은 성 프란치스코처럼 재속프란치스코회원들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교회를 쇠신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며, 본인의 할머니가 재속프란치스코회원 이어서 본인이 어렸을 때 형제회 모임에 갔었고, 고모(이모) 역시 클라라의 가난한 수도회의 수녀이며, 사제가 된 후 두 번째 미사를 아씨시의 성프란치스코 무덤에서 집전했었고,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라고도 하셨다. “가끔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미라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치 “유대인들이 사막에서 방랑할 때, 다시 이집트로 가고 싶어 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현실의 것들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이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하셨다. “주님의 영에 머무르지 않으면, 우리도 메마르고 시들해져서 미라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회원으로서 그리고 카르멜 수도회원으로서 우리 모두 함께 라면, 큰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오늘날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의 카리스마를 갖고 살라고 우리를 프란치스코회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비난하지 맙시다. 오히려 프란치스코와 클라라가 하였듯이 교회를 도웁시다. 방해자가 되지 말고, 해결자가 됩시다. 우리는 지금 사막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교회를 쇠신할 수 있는 영적 힘으로 강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셨다. 성 아빌라의 “주님께서 당시 안에 머무르시면, 모든 것을 견디어 낼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재확인하시면서 마치셨다. 이어서 San Antonio의 St. Francis of Assisi 형제회 Bob Conces 형제의 즐거운 기타 연주가 있었고, 국가형제회 회장 Jan Parker의 교회를 재건하고 쇠신하라는 주교님의 격려 말씀에 감사드렸다. “우리는 교회와 전적인 친교를 가져야 한다고 회칙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한 분이듯이 우리도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을 위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라는 말씀으로 개회 미사를 마무리하였다.